

초우량 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뜻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쌍용건설이 금년 10월 18일자로 워크아웃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자금 유동성 문제로 지난 1999년 3월 워크아웃을 시작한지 만 5년여 만에 이룩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쌍용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557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연말 기준으로 약 160%대 부채비율과 3조원 이상의 수주 잔고 및 600억원대 이상의 경상이익이 예상되는 견실한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당사 임직원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지난 워크아웃 기간동안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쌍용건설과 임직원들을 믿고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로서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쌍용건설은 이번 워크아웃 졸업을 계기로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어느 기업보다도 투명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초우량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쌍용건설 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배전의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 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4년 10월
쌍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석준

100년 역사를 향해 질주하는 기업

강희좌 자금관리담당



창립 27주년을 맞아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쌍용 건설에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로써 어려운 현실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쌍용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쌓아올린 공동 탑을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는 쌍용건설이 되시길 바랍니다. 쌍용인의 땀과 노력으로 하나된, 오늘의 쌍용건설을 만들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기를 맞이한 쌍용건설이 100년 역사를 향해 질주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남동익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먼저 쌍용의 창립 27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5년 여의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선상에 서게 된 점은 우리 건설업계 전체에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쌍용건설 임직원 제위의 정열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증설로부터 시작된 쌍용건설의 27년은 그야말로 영육쌍곡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중동 건설 시장을 개척할 즈음의 각종 시련과 동남아 시장에 우뚝 솟은 성공 과정, IMF 환란으로 인한 시련과 극복 과정... 그리고 오늘의 새 출발. 특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룩한 쌍용의 고품질 건축물들은 건설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금자탑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싱가포르 래플즈 시티 건설 이후 아랍을 수상은 한국 건설인의 우수한 자질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었고, 우리 나라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해외건설 현장을 시찰한 곳도 쌍용의 플라자 인도네시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양국 주재 대사관의 건설관으로 봉직하고 있던 필자로서는 쌍용과의 인연을 회상하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과 개척으로 요약되는 쌍용건설의 27년. 워크아웃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였기에 오히려 값진 교훈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1세기 한국 건설산업을 견인할 쌍용의 미래 비전은 희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쌍용인의 근면성과 탁월한 능력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 27돌과 워크아웃 졸업을 축하드리며, 쌍용건설과 쌍용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끈끈한 단결력과 수준 높은 기술력

김수삼 대한토목학회 / 한양대 부총장



쌍용건설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드린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쫓겨가게 견디어 온 쌍용건설의 모습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 또 금년에는 위기가 될 뻔한 워크아웃을 훌륭하게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그 동안 국내외 현장에서 건설 명가로서 손색이 없을 많은 작품을 건설해 왔습니다. 끈끈한 단결력과 수준을 갖춘 기술력은 은은하면서도 굳건한 쌍용건설의 이미지를 쌓아왔다고 판단됩니다. 한때 경영의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 토목인들은 마음을 줄이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만, 굳건히 재기에 성공하는 쌍용건설의 노력을 보면서 모든 토목인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로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건설 시장은 과거와 다른 환경이 도래합니다. 부디 영원히 강건하게 성장하는 쌍용건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토목인들은 쌍용건설의 부흥을 위해 도울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로써 어려운 현실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쌍용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쌓아올린 공동 탑을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는 쌍용건설이 되시길 바랍니다. 쌍용인의 땀과 노력으로 하나된, 오늘의 쌍용건설을 만들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기를 맞이한 쌍용건설이 100년 역사를 향해 질주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세계 속의 쌍용으로 재도약하는 모습 기대

장승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1990년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을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국내 건설산업의 경영 지표에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벌어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우리 나라의 굴지의 많은 건설 회사들은 워크아웃이라는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쌍용건설의 모든 임직원들은 일치단결해 이러한 국내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와 역경을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경이로움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관된 모습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쌍용건설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저력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한 국내 건설산업은 최첨단의 기술개발을 포함한 부단한 자기 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서만이 세계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쌍용인 여러분들이 이번 워크아웃으로부터의 탈출을 계기로 지금의 쌍용을 세계 속의 쌍용건설로 재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10월 18일을 기하여 쌍용건설이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 27주년과 워크아웃 졸업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쌍용건설의 무궁한 발전과 쌍용건설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로써 어려운 현실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쌍용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쌓아올린 공동 탑을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는 쌍용건설이 되시길 바랍니다. 쌍용인의 땀과 노력으로 하나된, 오늘의 쌍용건설을 만들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기를 맞이한 쌍용건설이 100년 역사를 향해 질주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